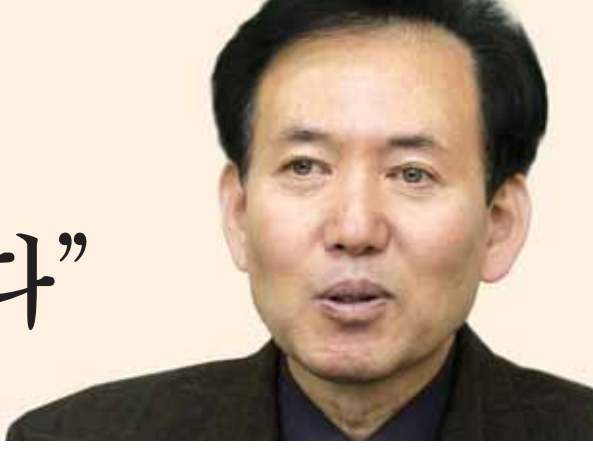


### 제9회 광일문학상 윤삼현 문산초 교사

# “열정과 끈기로 문학의 길 가겠다”



“동심불패(童心不散)의 가치를 되새기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회 광일문학상에 선정된 윤삼현(61) 문산초등학교 교사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끈기로 문학의 길을 가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다진다.

수상작인 ‘철마와 소녀’는 남북분단의 비극을 다룬 동화로, 철마의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배경이 되었다.

해남 출신인 윤 교사는 1982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뽕튀기’,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달이 그린 수제화’가 당선되었다. 이후 198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달을 타고 온 동이’가 당선되면서 동시와 동화 두 부문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그는 197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첫째 고향인 해남 북평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문예반 지도를 하는 틈틈이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 동시와 동화

를 썼다.

“신춘문예 동화 당선작 ‘달을 타고 온 동이’와 이번 수상작 ‘철마와 소녀’는 분단의 아픔을 다룬 내용입니다. 통일은 한민족 모두에게 가장 절박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분단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 교사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듣고 자랐다. 12대 할아버지가 운선도였던 인연으로 자연스레 문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수상작 ‘철마와 소녀’는 멈춰선 철마를 찾아오는 두무미를 관찰자로 내세워 이야기 전개된다. 또한 경원선을 달리는 철마의 기관사와 기차길 옆 오두막에 사는 소녀의 우정을 매개로 분단 현실을 조명한다.

“일본의 미야자와 겐지가 꿈과 희망을 잃은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환희와 꿈을 전해주기 위해 ‘은하철도의 밤’을 썼던 사실을 생각했지요. 부족한 작품이지만 ‘철마와 소녀’가 분단의 아픔을 담고 통일을 기

원하는 이들에게 작은 소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사를 맡은 고재종 시인은 “윤 작가의 동화는 분단의 아픔을 사실적이면서도 상상력을 빌어 이야기를 꾸며내는 힘이 강점”이라고 평한다.

에 참여해 독서 토론, 시낭송,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별밭’ 동인 창립 멤버로 올해까지 27집의 동인지를 발간해 지역 학교와 어린이들에게 기증을 했으며, 남촌문학회장으로 7년간 고향 해남 청소년 백일

### 수상작 ‘철마와 소녀’ 분단 비극 다룬 작품

#### “민주화 소재로 한 장편동화 구상 중”

윤 교사는 현재 장편 동화를 구상중으로 겨울 방학부터 창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북분단 외에도 현대사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를 동화로 구현해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윤 교사는 지역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광주 전남 산하 초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작가와와 만남’ 프로그램

장, 시낭송회, 시화전을 열기도 했다.

“작품 한 자 한 자에 치열한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쪽정이 글의 남발은 공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정신의 깊이에 따라 질과 중량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8일 목요일 국립국악한마당

## 歌香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목요열린 국악 한마당’이 우리소리연구회 ‘가향(歌香) 초청 무대를 마련했다. 2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가향’(대표 김은숙)은 창과 판소리 전공자들로 구성된 국악 그룹. 전통과 창작음악을 모두 소화하며 국악에서 뉴에이지 음악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레퍼토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소리길을 찾아서Ⅱ’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정달영류 고제 가야금 병창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시작으로 정인호의 판소리 ‘수궁가’ 중 ‘여전회의’, 정소영의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만날 수 있다. 또 김은숙 대표와 문화생들이 경기민요 병창 ‘태평가’, ‘매화타령’, ‘범벅타령’을 선보인다.

그밖에 대구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무용가 최미애씨가 특별 출연, ‘교방 살풀이’를 무대에 올린다. 고수는 광주교육대 김동현 교수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6~27일 문예회관

## ‘5개국 10가지 변주곡’

우제길미술관 26일~12월10일 국제관화워크숍

우제길미술관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5개국 10가지 변주곡’을 주제로 국제관화워크숍을 진행한다.

국제관화워크숍은 우제길미술관이 국제적인 관화작가를 초청해 광주지역에 소개하는 연례기획전시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모두 3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빈 중국미술대학 교수를 초청해 그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안빈 교수는 1980년대 이후 급변한 중국 예술생태환경 속에서 예술의 정체성과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두 번째 섹션인 ‘5개국 리마인드’전에서는 파스칼 지라르(프랑스), 고바야시 케이세이(일본), 슬레이만 사임텍잔(터키), 동진평(대만), 우제길(한국)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젊은 관화작가 김환, 안영찬, 장원석, 장진수, 한예형씨의 작품이 마지막 섹션인 ‘청년 관화작가 5인’전을 장식한다.



‘차이의 세계’

26일 오후 3시에는 미술관에서 안빈 교수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작가가 직접 관화 작품을 시연하는 ‘2013초청작가 안빈 간담회 및 시연회’가 열리고, 바리톤 정명규씨 등이 함께하는 ‘미술과 음악이 만나 인연을 만드는 문화공간’이 이어진다. 문의 062-224-66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겸재정선화첩’을 만나다

독일서 반환 8년만 일반 최초 공개... 단행본도 발간

후기 최고의 진경산수화가로 꼽히는 겸재 정선(1676~1759)의 작품 21점을 모은 ‘겸재정선화첩’의 전모가 일반에 공개된다. 독일에서 영구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된 지 8년 만의 일이다.

국외소재문화재단(이사장 안휘준)은 25일 ‘돌아온 문화재 총서시리즈’ 첫 번째로 ‘겸재정선화첩’의 형태와 모양을 최대한 재현한 영인복제본, 화첩의 환수과정 및 학술적 의미를 밝히는 글들을 모은 단행본 ‘왜관수도원에 돌아온 겸재정선화첩’ 등 도서 2권을 출간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궁으로 돌아온 겸재정선화첩’ 전시를 개최한다. ‘겸재정선화첩’의 21점 작품 모두가 일반에 공개되고, 연구가 집대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겸재정선화첩’은 독일 샤프트 오티리엔 수도원의 노르베르트 베버총아빠스(대원장)가 1925년 한국 방문 중에 수집해 독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만폭동도’

화첩은 2005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샤프트 오티리엔 수도원이 80년 동안 소장하다 왜관수도원에 영구 대여의 형식으로 반환했다. /연필뉴스

## 창작가곡

광주음악협회(회장 김남경)가 주최하는 제24회 광주음악제(총기획 김유정)가 26~27일 오후 7시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6일에는 ‘성악과 창작 페스티벌’을 주제로 공연이 열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의 신작 가곡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김승일·구희영·김현옥·김성훈·윤대근·황성호·김소정·김진선씨 등 지역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프라노 이명진·이승희·진수정, 테너 장호영·이상상, 바리톤 염종호·손승범씨가 무대에 올린다.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자들’의 공연도 마련돼 있다.

27일 열리는 ‘기악 앙상블 페스티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앙상블팀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다. 에콜 드 플루트 앙상블, 칼리아 현악 4중주, 알스트 피아노 트리오, 라온 5중주, 탐 금관 5중주, 솔리스트 앙상블, 황토재 국악 앙상블이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서곡, 보로딘 ‘스트림 파르렛 제2번’, 알렌스키 ‘피아노 트리오 제1번’, 생상의 ‘죽음의 무도’, 유태환의 ‘꿈이로다-황타령’, 립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등이다.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극단 ‘허방’ 27~30일 예술극장 통



## 진짜 서부극

극단 ‘허방’이 8회 정기 공연 작품으로 샘 쉐퍼드의 ‘진짜 서부극’을 무대에 올린다. 27~30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4시·7시), 예술극장 ‘통’(광주세무서 맞은 편)

최고의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에 시상하는 ‘오비상’을 11차례 수상한 샘 쉐퍼드는 1983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파리, 텍사스’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특히 그의 폴리처상 수상작인 ‘매장된 아이’는 현대 희곡의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서부 사나이’는 성공한 시나리오 작가인 동생과 세상을 등진 채 사막을 떠도는 형이 엄마의 집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단적으로 다른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이치를 파헤친 블랙 코미디다.

극단 대표 김영학씨가 연출을 맡았다. 윤희철·이현기·한중곤·박경단씨가 출연한다. 문의 010-5642-9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012년 문화 발자취 ‘광주문화재단백서’ 발간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문화예술분야 사업현황과 성과를 정리한 ‘2012 광주문화재단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광주문화재단 2012, 재단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 사업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추진사업 섹션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50

여 개 사업을 총 11장으로 구분, 사업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과제를 짚었다. 또 지원부서의 주요 업무 내용을 다룸으로써 재단 사업은 물론 지원부서의 총체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에는 재단 조직·인력·시설·예산 등 기본 현황, 주요축재 프로그램 현황, 사업일지

등 지난 1년간의 발자취가 정리돼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2012 광주문화재단백서’를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 게재, 누구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62-670-7431.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특허번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권속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목회 제10-097254호 목회 제10-122919호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연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